



우리의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斗燮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安孝公宗會 2009年度 定期總會 開催 結果

신임회장 인사 말씀



전국에 계신 일가여러분! 그동안 지루한 장마와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댁내 모두 건승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8일의 정기총회에서 安孝公宗會 회장으로 취임한 행진(行鎭)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소생에게 회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나 그 보다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는가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하오나 전임 斗燮회장께서 종회를 알차게 경영하여 다져온 기반 위에서 선조산소의 수호관리(守護管理)는 물론 安孝公의 유덕(遺德)을 추모찬양(追慕闡揚)하며 종재의 철저한 보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종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목표설정과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종인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소생을 회장으로 선임해주심에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安孝公宗會 會長 行鎭

2009년 5월 28일(陰 : 5월 5일 端午)오전 10시에 안효공 할아버님의 墓前에서 端午節 祀를 봉행 하였다.

제향봉행을 마치고 10시 40분부터는 재실마당에 마련된 회의장(의자 350개, 동재, 서재 기타)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550여명의 宗인이 참석한 가운데 斗燮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載玉재무이사의 회무보고에 이어 2008년도 결산(안)심의 승인의 건이 茂燮감사의 감사보고로 계속되었다. 2008년도 결산보고와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종토처분 및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를 듣고 이의 없이 거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금년에 斗燮회장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신임회장에 行鎭 강서공종회장을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이어서 부회장 및 감사 선임을 마치고, 기타 임



▲2009년도 정기총회 광경

원은 신임회장단에 위임하여 선임키로 하였다. 회의 중 많은 의사발언으로 회의진행에 조금은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모두가 잘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종회를 폐회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도시락을 받아 들고 나무 그늘 밑에 둘러앉아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잔을 권하고 안부와 정담을 나누며, 이 모든 것이 安孝公 할아버지의 蔭德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행사를 끝맺었다.

◆ 任員選出

- 顧問 問：魚澤 永澤 斗燮 相龍
- 指導 委員：宜亨 爽鎭 衡鎭 相八 彦浩 元燮 錫圭 載鴻 寬錫 成輔
- 會長：行鎭
- 副會長：庚周 相德 敏玉
- 監事：文洙 一輔
- 運營 委員：在安 光澤 萬鎭 相泳 相直 應璋 相國 明玉 玄根 茂燮 載春
- 總務 理事：載玉
- 財務 理事：相弘
- 墓下管理理事：相億 彦村 應植

理事

- [서울]明燮 相慶 斗燮 載澈 洪燮 載洪 贊秀 錫廷 相文 宜杓 容圭 種福 忠澤 佑燮 [인천]在弼 應善 光燮 左輔 [수원]成鎭 厚燮 孝燮 榮鎭 珍瑛 喜鎭 忠燮 賢燮 旺燮 駿燮 瑛珩 成鎭 南鎭 相燮 相元 應鎭 舜鎭 相讚 彥契 相昇 相福 [김포]元輔 良燮 載勳 相達 允輔 [과주]光燮 仁燮 榮燮 [안성]一用 虎燮 振裕 相旭 政燮 權裕 [용인]魯鎭 在天 彦吉 載國 永周 彦昌 景燮 相穆 載浩 [양주]昌燮 [안양]毅根 應來 載文 [화성]教鎭 國鎭 相鳳 [여주]光燮 [안산]相厚 [평택]文鎭 [청주]興燮 中來 載福 載龍 [여천]大輔 [괴산]光輔 [충주]中鎭 [고양]文錫 [남양주]相浩 [익산]昌燮 周燮 相國 仁求 [光州]憲燮 [아산]彦昇 仲根 [대전]宜哲 載榮 奉燮 連輔 星輔 [춘천]仁燮 [원주]正輔 相烈 [진주]在圭

지방순회 뿌리교육

종인들 간에 친목을 다지고 문중의 뿌리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일자 : 2009. 8. 14 (금)
2. 교육장소 : 대전 뿌리공원 장수마을 강당(대전 중구 침산동 산 34)
3. 참석대상 : 청송심문의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남·여 불문)

교육시간

- ▷ 현 조사 적 : 10 : 00 ~ 11 : 50
- ▷ 점 심 : 12 : 00 ~ 12 : 50
- ▷ 뿌 리 알 기 : 13 : 00 ~ 13 : 50
- ▷ 홈 페 이 지 : 14 : 00 ~ 14 : 50
- ▷ 특 강 : 15 : 00 ~ 15 : 50
- ▷ 조형물답사 : 16 : 00 ~ 16 : 50

※ 교재와 중식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 사

- ▷ 載烈(대중회 문화이사) : 현조사적
- ▷ 鍾赫(대중회 총무이사) : 대중회 홈페이지, 인터넷 족보
- ▷ 玄根(전 대전·충남 종회장) : 뿌리를 알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 ▷ 太平(국회의원,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
- ▷ 龜錫(전 대구 본리여중교장) : 충효사상에 관한 교육

찾아가는 길

- ▷ 경부고속도로 : 대전IC → 비룡 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방향) → 안영IC
- ▷ 호남고속도로 : 유성IC → 서대전 분기점 → (경부고속도로 방향) → 안영IC → 톨게이트 우회전(시내방향) → 다리건너 우회전 → 뿌리공원(장수마을)
- ▷ 대전역 : 광장 남쪽 역전시장 앞에서 313번 시내버스(대전역 → 뿌리공원)

연 락 처

- ▷ 청송심씨대중회 : 사무실(02-2267-7857)
- ▷ 대전·충남지구총회 : 회장 심일섭(010-6407-3344)
총무 심규선(019-524-0908)
- ▷ 뿌리공원 장수마을 : 042-589-2212~2214

青松沈氏大宗會

九世祖 忠惠公(諱:連源) 『記錄』모음 - ②

(奎章閣 所藏 文獻)

宣祖 丁卯年(1567)겨울에 벼락을 친일이 있었다.三公이 죄를 사면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左相 이명(李莫)이 말하기를 “바야흐로 지금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었으니 원한을 풀어주어 침체된 분위기를 떨쳐내야 합니다. 乙丑年(1565)에 옮겨온 많은 사람들을 선왕께서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과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반드시 선왕의 뜻을 본받아야만 잘 계승하고 잘 기술하는 것입니다. 領議政 沈連源도 늘 士林의 화(禍)에 대하여 애통하게 여겨 신원(罪를 사면함)하여 주려고 뜻을 두었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자전(慈殿 : 임금의 어머니)의 가르침도 또한 정사를 바로 받드는 뜻입니다”고 하였다.

율곡 이이(栗谷 李珥)는 乙巳年(1545)의 위훈(僞勳)을 삭탈(削奪)을 청하는 일곱 번째 자자(筭刺 : 간단한 상소문)에 말하기를 “沈連源은 본래 사사로운 논의에 참여하려고 아니하였으나 윤원형 등이 이에 말하기를 ‘반드시 심연원과 같이 공신에 참여한 연후에야 훈적(勳籍 : 공신의 업적을 기록한 문서)에 올리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심연원은 마음으로는 그 잘못됨을 부끄럽게 여겨 고사하고 싶었으나 겉으로는 그 화단이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힘껏 사양하지 못하고 공훈을 기록하고서 집으로 돌아와 그 부인과 그것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였다.

돌아가신 영의정 沈連源은 바로 臣의 祖母의 宗모제(從母弟)가 된다. 臣이 祖母께서 살아 계실 때에 심연원의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심연원이 처음으로 사직을 호위한 공훈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그 아내와 서로이야기 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조모께서 살아 계실 적에 신에게 말하기를 “功臣은 크게 이로운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沈公이 이것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울고있으니 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臣이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연원의 인물됨을 알게되었다. 비록 협박을 받아 공훈에 기록되었으나 사실 여러 현인들이 그 허물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픔에 잠김이 이와 같다.

[율곡연주(栗谷筵奏)에서]

※ 율곡(휘는 李珥) 申師任堂의 아들. 저서로는 성학집요(聖學輯要) 등이 있음.

沈連源이 부학(副學)이 되어서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나아가니 金安老가 그를 외직(外職)으로 밀어낸 것이다.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는 날에 金安老가 술병을 들고 와서 한강에서 그를 전송하였는데 술잔을 들고 탄식하면서 이별을 어렵게 생각하는 기색을 보였다. 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이번 행차에 대하여 우리 당에서는 당신의 동생이 몇이나 되는지 알지 못하니 관직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니 공이 말하기를 “비록 아우 두 명을 두었는데 통원(通源)은 업과(業科)로 있으며 봉원(逢源)은 자주 아파서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몇 일 되지 않아서 逢源을 금오랑(金吾郎: 의금부 도사)에 제수 되었으나 병이 들어 나아갈 수 없으니 마침내 부술(副率)로 옮겨 제수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평생에 알지 못할 것은 이런 경우이다. 이미 그 형을 외직으로 내 보내고 또 그 동생을 등용하니 무슨 마음에서 인가?”

[기제잡기(寄齋雜記)]

※ 기재잡기 = 조선시대 초기부터 명종에 이르는 歷代의 野史. 仁祖대의 文臣 寄齋 朴東亮이 지은 책.

明宗朝에 남명(南溟) 조식(曹植)이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나라의 일이 이미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가지고 하늘의 뜻이 이미 옮겨갔고 사람의 마음이 이미 떠났고 자성(慈聖 : 임금의 어머니)께서는 생각이 깊고 성실하지만 깊은 궁 안의 한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하(殿下)께서는 유충(幼沖) 하시니 선왕의 한 고아로 왕위를 이어 받았을 뿐입니다. 천재(天災)의 백 천 가지나 되는 것과 인심의 억만 가지나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께서 그 불손한 언사에 대하여 진노하여 대죄로 다스리려고 하자 수상인 沈連源이 구양수(歐陽修)가 한 부인에 말을 따른 고사를 인용하여 간언(諫言) 드렸기 때문에 죄를 면할 수 있었다.

[조야회통(朝野會通)에서]

※ 조야회통 = 朝鮮王朝의 編年史(年代記). 金載九가 지었다는 說이 있음.

미암(眉菴) 유희춘(柳希春)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기에 말하기를 “明宗이 沈連源과 이언적(李彦迪)을 配享하여 11명으로 하였으니 이것이 공론이다”고 하였다. 옛날 明宗朝에 있었던 일로 仁順王后의 조부로서 首相을 삼았으니 두터운 덕과 큰 명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원형(尹元衡)이 조종을 어지럽히고 선비들을 일망타진하였는데도 국가의 기강이 더욱 바르게 서고 士林의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沈連源의 노력이었다. 그 뒤에 이량(李樑)이 정사를 어지럽히는데 이르러서는 심의겸(沈義謙)도 또한 정사를 돕는데 노력하였으니 그들이 앞뒤에서 잘 보호해준 士林에 대한 공이 이와 같다.

[문곡연보(文谷年譜) 연주(筵奏)에서]

※ 文谷 = 조선시대 김수항(金壽恒)의 호. 領議政, 南人과의 싸움에서 밀려진도로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됨.

저서(著書) : 文谷集 등 다수 있음.

간악한 무리들은 고평(痛弊 : 뿌리가 깊어 고치기 어려운 폐단)이 있으며 올바른 논의는 살아진 때를 만났는데 공이 바로 충심을 품고 곧은 뜻을 지켜 우뚝 서서 동요되지 않았으며 마침내 세상의 가르침을 바로 세우려 하였기 때문에 군자를 진출시키고 소인은 퇴출시키는 것으로써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그래서 이문원(李文元)과 송인수(宋麟壽) 조종경(趙宗敬) 임권(任權) 심연원(沈連源)등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좋은 때가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면서 희망하였다.

[박치(朴治)의 행장(行狀)에 나오는데 우암(尤庵)이 지은 것이다.]

이에 앞서 仁順王后가 일찍이 선친(先親)을 위하여 본제(本第 : 고향있는 자기 집)로 행차 하었는데 이날 마침 태풍의 피해가 있었다. 임권이 경연의 자리에서 임금께 아뢰어서 궁벽한 시골은 국모가 강림(降臨)할 땅이 아니라고 아주 간곡히 진언

하였다. 적리(戚里 : 임금의 내척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가 있는 곳은 은혜가 적게 미쳤고 천재(天災)와 지이(地異)가 밝게 나타났으니 하늘의 뜻을 알수 있으며 그 일기에도 또한 직책이 있으니 직책이 있는 사람은 요행히 그 은혜를 입고있기 때문에 행차하지 말아야한다고 하였으니 沈連源을 지적하여 말하기도 한 때문이다. 이때 심연원도 또한 같이 들어와 임금을 모시고 있었으니 두려워하던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조야집요(朝野輯要)에서]

※ 조야집요 = 正祖8년 이루어진 朝鮮王朝의 編年史「龍飛御天歌」「國朝寶鑑」등 80여종을 인용하여 史實을 기록한 책.

忠惠公 沈連源은 바로 靑陵府院君 沈綱의 아버지가 되고 仁順王后의 조부가 된다. 공이 계실 때에 마음속으로 이미 청릉으로 옮겨가서 살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공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이 세상을 마치도록 감히 발설하지 아니하였고 무릇 궁인들의 사정을 일체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청강쇄어(淸江鎖語)에서]

※ 청강쇄어 = 淸江(휘 : 李濟臣)선생의 책이름, 조선 明宗宣祖때의 文臣.



< 끝 >

파(지역)종회 결성 및 변동사항 보고

년 월 일 현재

종회명	파종회	명칭								
	지역종회	계보	5세	諱 :	세	諱 :	세	諱 :	세	諱 :
창립일자			년	월	일	회원수	명			
중중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우편번호				
	전화									
주요기구	명칭					구성인원	명			
	명칭					구성원수	명			
회장					(인)	집전화				
총무					(인)	핸드폰				
					(인)	집전화				
고문					(인)	핸드폰				
지도위원										
명예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이사										
참고자료	정관 또는 주요기구의 명세 · 현황 등									

종회결성, 임원 연락처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대종회(팩스 02-2269-7755)로 제출

※ 안효공종회 산하 각 파종회는 2009년 8월말까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안효공종회(팩스 : 031-254-8066, 전화 : 031-253-8060)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마(駙馬) 청원군(靑原君)은 청성백(靑城伯)의 七子中 여섯 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청원군께서 15세쯤 되던 어느 날이였다. 이때가 1392년 6월로 이방원(李芳遠 : 후에 太宗王)이 자기 아버지(李成桂)의 일파를 죽이려고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정몽주(鄭夢周)를 선죽교에서 격살하자 청성백께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開京에 있는 저택으로 돌아와 은거하고 계실 때였다.

어느 날 갑자기 이방원이 찾아와 청성백께 밥기를 청하였다. 이때에 청성백께서는 마침 저녁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밥이 조밥인지라 입에 남은 밥을 씹어 생키느라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야 사랑으로 나시어 이방원을 대면하게되었다. 이때 만해도 혁명이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라 권세가 당당하게된 이방원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약간 불쾌한 어조로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하였다. 청성백께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이 실은 내가 저녁식사를 들고 있었는데 조밥이 되어 입에 남은 밥을 먹다보니 자연히 시간이 지체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게” 하셨다. 이방원은 청성백께서 조밥을 드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듯 말하기를 “대감께서는 일국의 재상(宰相)이셨고 사전(賜田 : 나라에서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나린 전답)도 수백결이 되는 줄 알고 있어온데 조밥을 드신다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청성백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에서 사전은 받았는데 국가재정이 어려운 형편인지라 조세(租稅)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라에서 직급 되는 봉록(俸祿)만으로 생계를 꾸리다 보니 여유가 있을 리 없지” 하시고는 “그건 그렇고 시중(侍中 : 이성계) 대감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네. 덕택으로 강건합니다. 그리고 안부 말씀 드리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감께서 조밥을 잡수신다하니 좀 받아드리기가 어려워 말씀 올립니다만 죄송스런 말씀이오나 잡수시던 진지그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청성백께서는 곧바로 하인을 시켜 먹다 남은 밥그릇을 가져오게 하였다.

太宗大王(李芳遠)과 부마 靑原君(휘 : 沈淙) - ①

조금 후에 하인이 절반쯤 남은 밥그릇을 가져온 것을 보자 이방원은 얼굴을 붉히면서 “대감께서 이렇게까지 청백하게 지내시는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송구할 따름이 옅니다” 하고 나서 “시생이 오늘 저녁에 대감을 찾아뵙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이성계)의 간곡한 부탁 말씀을 전하여 올리고자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보시게” “대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부 이제(李濟)가 매우 용맹스럽고 영민하여 아버지께서 사위를 삼으셨으나 집안 문벌이 신통치 못해 늘 서운하게 여겨오셨는데 둘째 딸이 혼기가 되자 사윗감으로는 대감의 여섯째 아드님인 종(淙)을 마음에 두고 계시면서 대감을 찾아뵙고 청혼해 보라는 분부를 받잡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청혼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누구보다도 친근한 처지에서 청혼하는 것이오니 허물 치 마시고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청성백께서는 “淙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혼인문제는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었으니 졸지에 승낙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시생이 들은 바로는 방년 15세로 알고 있어온데 나이가 어리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되시면 정혼만이라도 해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혼사를 치르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이성계와의 친분으로 보나 그 막강한 권세 앞에서 거절할 수도 없는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의 정세가 혼미한 때라 아들의 장래도 걱정이 되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때에 이방원이 말하기를 “대감께서 승낙한 것으로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사주단자를 바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갈 때 대문까지 전송을 하셨는데 이 때에 대문밖에는 철퇴로 무장한 군사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방원이 나오자 호위하고 돌아갔다.

다음날 문하시중 이성계는 미두 백석을 싫어 보내고 사주단자가 보내짐으로서 이성계의 2녀와 청성백의 六男인淙과 약혼이 성립되었으며, 그 다음달인 7월 17일에 이성계의 易姓革命이 성공함에 고려국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뒤를 이어 등극하니 이가 朝鮮國 초대 왕인 太祖이다.

다음해(1393) 7월에 청성백께서는 위화도에서 回軍한 공로로 中興功臣(1등공신)의 특권이 내려지고 청성군개국충의백(靑城郡開國忠義伯)의 약칭으로 靑城伯의 작위를 봉작하였으며 10월에 六男 淙이 慶善公主에 장가들어 靑原君에 封君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방원과 처남 매제라는 인척관계가 되어 그 시작은 평온하였으나 그 끝맺음이 순탄치 못하여 악연이 되었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이방원은 제1王子의 난을 일으켜 世子 芳碩과 그의 동복 兄 芳蕃을 죽이고 이어 鄭道傳, 南閻 등 그 일파를 숙청한 후에 둘째 王子 芳果(芳果)를 世子에 올리더니 아버지가 왕위를 양위함에 따라 太祖의 二子 芳果가 朝鮮朝 2代 王인 定宗大王으로 등극하였다. 이때 청원군은 제1의 王子의 난에 功을 세워 推忠協贊定難開國定社功臣의 특권이 내려지고 田土 100결과 노비 20명도 함께 하사(下賜) 받았다.

- ※ 墓所는 파주시 문산을 운전리에 妃 慶善公主와 함께 쌍분으로 모셔져 있다.
- ※ 부마께서는 후사(後嗣)가 없고 따님 한 분을 두셨으니 서랑(사위)인 知敦寧府事 李明晨(栗谷 李珥의 五代祖)께서 外孫奉祀로 지금까지 591년 간의 時享을 奉行하여 오고 있다.
- ※ 時享日은 매해 음력 8월 8일 인데 太宗會에서는 매년 享祀에 참여하고 있다.
- ※ 太宗會에서는 墓所에 墓碑하나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중 금년에는 德水李氏 門中과 상의하여 묘갈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靑松報에서 발취



<다음호에 계속>

漢 詩

處世頑愚未練翁 (처세 완우미련옹)
 靜觀事物似無窮 (정관사물사무궁)
 乍憂乍樂人間像 (사우사락인간상)
 陽去陰來造化功 (양거음래조화공)
 歲月如流新舊換 (세월여류신구환)
 乾坤不老古今同 (건곤불노우금동)
 壽福康寧誠難得 (수복강녕성난득)
 秋實春生順理通 (추실춘생순리통)

완고하고 어리석게 처세하는 미련한 늙은이가
 세상물정을 고요히 관찰컨대 무궁한 듯하다.
 잠깐 근심하고 잠깐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형상이요
 양기가 지나가고 음기가 오는 것은 조화의 공이로다.
 세월은 유수같이 북은해가 가고 새해가 오나
 하늘과 땅은 늙지 않음이 예나 지금이 같도다.
 수복강녕은 진실로 얻기 어려우나
 봄에 자라서 가을에 결실함이 자연의 섭리로다.

壬午年頭感 顧問 柿齊 斗變
 <번역문> 편집실
 靑松報 제15호(1982년 6월)

외로운 섬 하나

대중회 이사 심 의 표

갈매기 떼 파닥이며
 바다 향한 그리움 안고
 활기차게 꿈 자락 펼치고

귀항 서두르는 고단한 선박
 눈부신 햇살 안고
 해면 가득 출렁이는 해질 녘

아물아물 깨알처럼
 수평선 멀리 작은 섬 하나
 외로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중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大宗會(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 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제작금액	150,000원 (깃대포함: 180,000원)	

判官公派馬山宗中 任員名單

委 員	財 務	總 務	監 事	副 會 長	會 長	顧 問
..
심 실	형 보	성 보	규 송	규 곤	규 동	순 보
규 실	주 보	성 규	성 규	성 규	광 수	재 기
호 조	소 보					사 보
규 관	대 보					점 보
정 훈	정 보					

13世祖 應教公(諱 光世) 『記文』(奎章閣 所藏 文獻)

부인(夫人 : 자기 어머니를 일컬음)이 본래 질환(疾患)이 많아 침위(枕幃)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공(公)께서는 도규(刀圭 : 의술)를 모셨으며, 공령(功令 : 학사에 관한 규정) 문자(文字) 사이에서 공부하느라 겨를이 없었으나, 과거에 합격하여 어머니를 영화롭게 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명경(明經)공부를 하였지만 또한 마음을 집중하여서 글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경전(經典)의 문장을 어머니가 계시는 침소의 벽에다 펼쳐서 붙여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중에도 늘 눈을 여기에 두어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몇 년 안 되어서 마침내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公)이 비록 명경(明經)과에 응시하여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육예(六藝)와 백가(百家)의 글도 두루 알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시를 잘 지어 문집 약간 권이 있었는데, 그의 해동악부(海東樂府) 1) 시는 세상에 유행되었다. 본래 포부는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뜻을 두어, 장차 이 세상에서 크게 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십 년 동안 세상은 혼탁하였으니 해우(海憂 : 왜적의 침입)가 반세기 동안 두려움을 끼친 것이다. 계축(癸丑 : 1613년) 개왕(改王)된 뒤에는 먼저 부름을 받아 경악(經幄 : 經筵을 말함)에 출입하였다. 장차 할 일이 있었을 것인데 애석하게 되었다! 하늘이 수명을 더 빌려주지 아니하여 마음의 포부를 일만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펼치지 못하였다. 어찌 자손 된 자로서 애통하고 한스러움이 되지 않겠는가? 공(公)의 호는 휴옹(休翁)이고, 경상도 고성현(固城縣)의 향현사(鄉賢祠)에 모셨다고 한다.

공이 광해군의 어두운 조정에서 벼슬을 하였다. 계축(癸丑 : 1613)년에는 연흥부원

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梯男)이 옥사를 일으켰는데, 공의 동생으로서 현감이 된 정세(挺世)는 연흥부원군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고문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그 화단이 이어서 공에게 미쳤으나 다행히 죽음은 면하게 되어 고성으로 유배되어 10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그 곳은 바다 가로 거친 지역이었으나 공이 마을의 자제들을 잘 인도해 주어서 성취한 바가 많았다. 공이 죽게 되자, 많은 선비들이 재물을 모아서 서원을 건립하고 수양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음법리(陰法里)의 옛 터에 건립하였으나 나중에는 유월리(柳月里)로 옮겨서 건립하였으니, 유촌서원(柳村書院)이라고 하였다.

인조(仁祖)와 공(公)은 모두 문의공(文懿公)의 외손(外孫)이 되는데, 원종(元宗)의 본궁(本宮 : 지금의 저경궁(儲慶宮2))이라 함은 우리 집과 같이 남쪽으로 전원의 한 공터의 땅에 있다.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음) 우리 가정의 앞 뜰계단은 3층으로 쌓았는데 그 높이가 어깨와 가지런하다. 인조가 잠룡(潛龍 :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를 말함)으로 있을 때, 언제나 달밤이 되면 공터로부터 전원의 남쪽으로 와서 계시곤 하였는데, 그가 되돌아갈 적에는 일찍이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서 반드시 몸을 위로 날려서 계단으로 뛰어올라 돌아갔다. (공에 대한 것은 동네에서 들은 것을 기록한다)

공은 숙부공(宿負公)으로서 인조한테 매우 두터운 명성과 인망으로 보임(補任)되었는데, 인조가 비로소 의거를 논의할 때에 청운군 휘 명세(靑雲君 諱 命世 : 부군(府君)의 제 셋째 동생 임)께 일러 말하기를 “이 일은 형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운군(靑雲君)은 인조한테 이형(姨兄)이 됨]하니, 청운군이 그렇게 하기로 허

락하였다. 인조가 또 말하기를 “고성(固城)에 있는 형씨(兄氏)는 더욱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때 부군이 고성으로 귀양 가서 있었다고 함) 청운군이 말하기를 “가형(家兄)의 뜻은 감히 반드시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인조가 또 광주공(廣州公) 소자(小子)를 호칭하며 말하기를 “고성에 있는 형씨는 비록 반드시 참여하게 할 수 없지만 아무개도 또한 참여할 수 없겠는가?” 하였다. 광주공은 즉 부군의 제 4남인데, 그 때 나이 아직 약관이 못 되었으며 본래 문장으로써 일컬어졌음) 청운군이 대답하기를 “제가 마땅히 가형께 이야기하여 보겠습니다.”하고 마침내 귀양 간 곳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아뢰었다. 부군(府君)이 말하기를 “너가 이미 허락한지 잠시도 안 되었다마는 나는 참여할 수 없다. 내가 이미 참여하지 않고 또 내 아이로 하여금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그것을 허락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다. 청운공이 곧바로 회정(回程)하여 겨우 30리를 왔는데, 서한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아이도 또한 참여할 수 없다. 대체로 이것은 의로운 거사로서 비록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 윤리를 바로세우는 대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부자와 형제가 나란히 훈적(勳籍)에 기록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조가 그 말을 듣고 크게 탄탄하였다. 이 때문에 개옥개혁(改玉改行)한 뒤에 부군(府君)의 관위(官位)는 옛날 그대로의 벼슬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좌옹(佐戎) 막하(幕下)로 나아가 서쪽 요새를 두루 살피고 조정으로 돌아왔으나,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다.

백헌(白軒) 이공(李公)이 쓴 휴옹집(休翁集)의 서문에 “만향(蠻鄉)으로 귀양을 가서 10여년 온갖 고생을 하였다. 다행히 하루 아침에 해와 달이 새로움을 보고 바람과 구름이 회합할 때, 비록 스스로 영화로운 길로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그 북산(北山)의 대부(大夫)의 종사한 것에 비해서는 마땅히 적은 것 같다. 아침에 법연(法筵)에 올랐으나 저녁에 변방 요새로 나온 것이다.”하였으니 이것은 사실을 기록

沈영감 심민섭



한 것이다.

■ 각주

해동악부 : 동국악부(東國樂府) · 해동악부 등 다양하게 제목을 붙였다. 연작(鍊作) 형태인 점, 대체로 3자(字)로 된 제목과 서(序) · 원시(原詩)로 구성되어 있는 점, 원시는 악부체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서 해동악부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장르를 형성함을 말한다.

저경궁 : 조선시대의 궁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때 내수사(內需司)와 칠궁(七宮), 그 밖에 창의궁(彰義宮) · 저경궁(儲慶宮) · 연희궁(衍禧宮) 등 왕족 · 왕비쪽에 소속된 토지가 있었다.

- 문화부 -

< 끝 >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
- ◆ 보급가격 : 22만원(별도구입시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鬻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宗 事 消 息

五世祖 安孝公(諱:溫)端午節祀

(陰 5월 5일 端午)



初獻: 庚周 亞獻: 興燮 終獻: 敏玉

大祝: 相直 執禮: 載玉

執事: 載澈 彦村 應植

▶ 獻誠金

鐵原宗會: 200,000 信川公宗會: 100,000

六世祖 恭肅公 配位 忌辰祭 奉行

6월 2일(음 5월 10일)



初獻: 雄輔 亞獻: 相烈 終獻: 상호

大祝: 하섭 執禮: 洪燮 執事: 相弘

본향 청송에서 『제5회 청송심씨 경친다짐대회』 개최

본향(本鄉)인 청송지역에 거주하는 宗人間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제5회 청송심씨 경친다짐대회』가 지난 6월 13일(토) 11:00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경의재에서 관내 종인 및 출향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청송심씨 청송청년회(회장 심충환)주관하여 격년제로 개최되는 금번 행사에는 90세이상 노인 7명에게 장수축하 기념품 증정과 40여년간 고향의 시모를 정성껏 모신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심말분(68세)님에게 孝婦賞을 시상하는 등 충효 분위기를 고양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沈大平 자유선진당대표최고위원(國會議員)이 처음 靑松을 방문하여 始祖墓所를 참배하고 찬경루 및 송소고택 방문을 하는 등의 일정으로 더욱 뜻깊은 宗親行事가 되었다.

(자료제공: 청송군청 심남규)



▲경의재에서 기념촬영(앞줄 좌측으로부터 다섯번째가 沈大平 국회의원)



▲경의재 마당에서 경친다짐대회(단상에 沈大平 국회의원)

大宗會 2009年度 定期總會

表 彰 牌

谷 城 宗 會

貴 宗會는 490年前 谷城으로 落鄉하신 都正公(諱 淳)의 後裔로서 崇祖敦睦 精神이 透徹하여 爲先事業에 率先垂範하면서 先祖任들의文化遺産을 守護管理하는데 힘써 왔으며, 宗會를 模範적으로 運營함으로써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이 牌를 드립니다.

2009年 4月 23日

靑松 沈氏 大宗會 會長(職務代行) 沈宜洛

表 彰 牌

沈 相 國

貴下는 崇祖敦睦 精神이 透徹하여 始祖 山所 守護管理와 祭享奉行에 獻身的으로 努力하였으며, 우리 門中の 貫鄉인 靑松에 讚慶會館을 新築하는데 많은 寄與를 함으로서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이 牌를 드립니다.

2009年 4月 23日

靑松 沈氏 大宗會 會長(職務代行) 沈宜洛

表 彰 牌

沈 相 夏

貴下는 2世祖 奉翊大夫公(諱 晟)의 後裔로서 20餘年間 鐵原宗會의 總務를 맡아 보면서 爲先事業과 祭享奉行에 獻身하시었고, 宗人間의 和合과 宗會發展을 爲하여 努力하신 功이 至大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기에 이 牌를 드립니다.

2009年 4月 23日

靑松 沈氏 大宗會 會長(職務代行) 沈宜洛

『主木會』 동정

관공서 퇴직 종인들의 모임인 주목회(主木會)의 월례 모임을 6월 29일 대종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주목회는 1985년 결성되었으며 현재 회원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 중 잔구(贊求) 완구(完求) 두 분이 부회장으로 재금(載金) 대식(大植) 춘보(春輔) 세 분이 이사로 대종회에 참여하고 있다. 주목회는 그 동안 대종회와는 별도의 친목모임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 4월 23일 완구(完求) 울산(山) 회원이 대종회 부회장에 선임

되었고 이 분의 제의로 6월 모임을 대종회에서 갖기로 한 것이다. 이날 대평(大平) 국회의원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대종회를 방문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셨으며, 주목회장인 훈종(勳鍾) 변호사께서는 오늘 참으로 의미 있고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종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회원 모두가 대종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기여하자고 말씀하셨다.

대종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보여주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다. 참석 회원들은 선조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되새기고 우리 모두 명문

가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데 대하여 만족해하며 대종회의 체계적인 운영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임을 마치고 오장동 함흥냉면 집에서 시원한 냉면과 수육에 반주를 곁들여가며 회원간에 정담을 나누고 대종회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였다.

▶주목회 명단

상훈 잔구 완구 재길 훈종 재금 재승 영섭 기섭 재길 관종 재일 우영 춘보 대식 갑섭 상호 상대 우섭 일섭 상정 익섭 장식 주목회 총무 우섭

고효율 열전 신소재개발 참여 「포스텍」 심지훈 교수



심지훈 교수(淸州宗人 沈載福氏의 二子)가 세계 최초로 핵에너지 원료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이어 고효율 열전 신소재개발에 참여해 학계는 물론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7년 핵에너지 원료인 플루토늄의 특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심지훈(34. 포스텍) 교수는 최근 고효율 열전(熱電) 신소재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따르면 폐열(廢熱)을 電氣에너지로 바꾸는 변환효율을 기존 7%에서 12%로 향상시킨 신소재 인듐셀레나이드(In4Se3-x)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잡지인 네이처(Nature)지에 실렸다.

심 교수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이상목 전무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에서 성균관대 권영성 교수 등과 함께 이론계산, 결정성장 분야에 각각 참여했다.

심 교수는 미국 러트거스대 물리학과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2007년 3월 러트거스대 연구팀 소속으로 플루토늄 물성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沈 교수는 증평초, 형석중, 운호고를 졸업하고 포항대에서 석·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선산(先山)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 공학박사)

들주막 조홍감이 나락별에 익어가고
동구길 번듯번듯 청기와도 붉더이다
철령재 드높은 하늘 노을은 자꾸 짧고.

능선은 적막하여 새소리만 들리더이다
꽃어얇아 생각하니 불효하기 그지없고
못나서 부끄러운 면목 까닭없이 싫더이다.

한 세월 부족없이 살으신 줄 알았는데
두렁 두렁 이랑마다 고초가 배였더이다
돌아빈 생전의 기쁨 어이 그리 넉넉더이다.

청송심씨 “용인종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74-3 번지
전화: 031-321-2401
대표자 연락처: 017-238-7705 심재현
FAX: 031-338-8958
이메일: sim77@paran.com
(성심껏 연락드립니다.)

會 長: 우인(양지면 주민자치위원장)
副會長: 재선(기남방송 용인지사장), 영섭
顧 問: 노진
理 事: 정섭 호상 재선 재국 재훈 재각
효석 규문 우보

『靑報會』 동정

월례 청보회 등산 겸 단합대회를 가졌다. 7월 5일 일요일 10시에 15명의 회원이 인천 계양역에 모여, 오늘의 일정인 桂楊山(395m) 산행을 시작하였다.

평평한 계곡의 울창한 숲 속 그늘 소나무 사이의 오솔길을 따라 3.5km를 오른 후 반환 지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시원한 물과 막걸리 한 잔으로 복종의 더위를 식히면서 오늘의 산행 대하여 이야기 꽃을 피웠다. 특히 노의장을 과시하는 載烈(문화이사) 相直(정보회 회장) 洪燮(정보등산회 회장) 相華 容奎 어른들은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들과 같이 힘든 산행을 무사히 마쳐 우리 청보회 모임을 더욱 빛내 주셨다. 앞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포부 노의장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下山하여 ‘새봄농원’에서 회원 載求씨께서 봄 고회원



▲부평 계양산 등반을 마치고 기념촬영 한컷

에 여러 회원이 참석해주신 감사의 뜻으로 점심을 대접하였다. 잔을 높이 들고 相華회원의 선장으로 “우리는 하나” “건강을 위하여”라고 외치고 진수성찬의 식사대접에 고마움을 표하였으며, 山行모임과 宗報作業에 모든 회원이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문화부 -

萬歲樓懸板詩(만세루현판시)

1570(선조3) 경 주부공 휘 학령(鶴齡)께서 시를 지으시고 현판에 조각하여 만세루에 걸어놓은 시구의 원문 및 번역문은 다음과 같음.

[번역문]

가친[필윤(弼倫)씨를 말함]께서 청송의 보광유사를 2년동안 책임 맡아 선영의 수호를 도우셨다. 이제 내가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오니 옛날을 추모하는 회포를 이겨내지 어려워 집에서 시를 지어 은밀히 즐기노라. 우리 소헌 인순 두분 성모께서 내관을 파견하여 송백을 심으시고, 부사로 하여금 향화를 받들게 하시니 호장이 제전을 이어받아 향사를 만드는 고로 다음과 같이 지어 모노라.

普光奇氣尙煌煌(보광기 기상황황)	보광산의 정기가 아직도 휘황하고,
吾祖文林此地藏(모조문림차지장)	우리 시조 문림랑공이 여기 모셔 계시네,
祥叶關雎重任姒(상협관저중임사)	상서로움이 화해서 두 분이 왕후 되시고,
連綿雲裔伴巖廊(연면운예반암랑)	연면한 자손이 조정에 가득하네,
兩朝雨露山多栢(양조우로산다백)	세종 명종의 은총으로 선산이 무성하고,
長吏頻藻歲薦香(장리빈조세천향)	호장이 제수를 갖추어 해마다 향화받드네,
成德至今因何識(성덕지금인하식)	큰 덕을 지금 어찌 알겠는가,
邑人遺募已千霜(읍인유모기천상)	고을사람들이 추모해오기 이미 오래로다.

인터넷족보 추가 등재

시조이신 문림랑 위위시승 휘 홍부(文林郎 衛尉寺丞 諱 洪孚)의 후손을 모두 수록한 족보를 '청송심씨대동세보'라고 하며, 1545년 발간된 을사보를 시작으로 2002년 경진보까지 총 11회의 대동세보를 발간하였습니다.

1998년 5월 대동세보 발간작업에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수단요원을 선발하고 7월부터 수단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각 과 및 지역별로 수단을 접수하였으며, 4년 여에 걸쳐 정서·전산입력·교정작업을 반복한 후 최종적인 편집과정을 거쳐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 ① 1972년에 발간된 무술보를 모두 전산입력한 후 계대를 맞추고 교정작업 완료
- ② 새로 접수한 수단을 정리하고 정서한 후 무술보에 연계 되도록 수단자료 입력
- ③ 전산입력을 진행하면서 입력자료를 추출하여 수단 원본과 대조·교정 작업 반복
- ④ 2002년 3월말 수단접수를 마감하고 최종적으로 교정 작업을 마친 후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부)으로 편집

젊은 세대를 위하여 'CD롬 족보'를 제작하여 대동세보와 함께 보급하였으며,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동세보를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세월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언제쯤 대동세보를 다시 발간할 것인지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후손이 태어나고 또 기 등재된 사람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대동세보에 추가등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롬 족보'는 PC의 운용체계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PC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종회에서는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인터넷족보를 만들기로 하고 우선 2007년 하반기에 대동세보(경진보) 전체를 재편집하여 대종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족보'에 등재하여 누구든지 족보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보를 발간한 문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변동사항을 족보에 등재하려고 해도 인터넷족보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는바, 추가 등재를 원하는 사람들로 부터 언제든지 수단을 접수하기 위하여 파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 2002년도에 대동세보와는 별도로 발간한 도총제공, 판사공, 지성주사공, 약은공, 수운판관공 파보와 1925년 경 북한지역(함흥)에서 발간된 전서공과 정랑공 파보를 인터넷족보에 등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8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 ② 앞으로는 항시 수단을 접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인터넷족보에 등재하고자 하며,
 - ㉠ 수단작성 방법 ㉡ 수단용지(견본) ㉢ 수단용지(갑,을) 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족보 수단(收單)작성 방법

【甲紙 작성요령】

1. 대동세보(경진보)에 등재(○○권 ○○○페이지)된 근기를 기재한다. 2002년 간행한 대동세보(庚辰譜)를 찾아본 후 연계하여 등재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대동세보가 없으면 대종회홈페이지(www.csshim.or.kr)에서 '인터넷족보'를 검색하여 확인한다.
2. 파명란은 ○○세와 그 분의 諱(이름)자 그리고 파명을 기재한다.
3. 직계선조는 1단에 기재되는 분의 3대(父, 祖父, 曾祖父)를 기재한다.
4. 수단주(대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집전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5. 수단작성 책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6. 수단금액 납부
 - 돌아가신 분이라도 처음 족보에 등재할 때는 수단금을 납부한다.
 - 생존한 사람은 기 등재된 경우라도 배우자를 추가하게 되면 수단금을 납부해야 한다.
 - 수단금은 기혼자 10,000원, 미혼자 7,000원으로 한다.
 - 기혼자와 미혼자의 인원수를 헤아려서 수단금액 합계액을 계산하여 기재한다.
- * 기 등재된 분의 사망일자과 묘소에 대한 기록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수단금을 면제한다.
- * 수단금은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고, 수단용지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대종회에 제출한다.

【乙紙 작성요령】

1. 기재순서
 - ① 이름 ② 양자 입·출계 사항 ③ 호적명·세례명 및 字·號 ④ 생년월일 ⑤ 학위·경력·직업·포상·저서 등 ⑥ 사망일자·묘소 ⑦ 배우자(예:全州李○○), 父名, 생년월일, 학위·경력·직업·포상·저서, 사망일자·묘소
2. 기재방법
 - ① 父 이름 우측 칸에 '子○○' 또는 '女○○'이라 기재하며, ()내에 음을 표기한다.
 - ② 養子 出系한 경우에는 '出系 伯父·仲父·季父' 또는 '出系○○' 등으로 기재하며, 入系의 경우에는 이름 다음에 '生父○○'이라 기재한 후 이하 내용을 기

- 재한다.
 - ③ 족보명을 지어서 올릴 때는 '戶籍名○○'을 기재하고, 세례명이 있으면 '세례명○○', 字나 號가 있으면 '字○○' '號○○' 등을 기재한다.
 - ④ '○○○○年 干支 ○○月 ○○日生'이라 기재한다.
 - ⑤ 학위·경력·직업·포상·저서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본이나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 ⑥ '○○○○年 干支 ○○月○○日卒', '묘소 소재지와 坐向', 碑石이 있으면 '有表石' 비석이 없고 床石만 있으면 '有床石', 화장한 경우에는 '火葬', 묘소를 이장하였을 경우에는 '○○○○年 ○○月 ○○日 ○○○(소재지)으로 移葬', 화장하였으면 '○○○○年 ○○月 ○○日 火葬'이라 기재한다.
 - ⑦ 배우자의 본관과 이름(예 : 配全州李○○), 친정아버지 이름(父○○)을 기재한 후 생년월일 이하 내용은 위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후배위가 있을 경우에는 전배위 란에 '育○男○女'라 표시한다. 묘소는 습葬이면 '墓附' 또는 '附右' '附左', 雙封일 때는 '雙墳', 상·하로 있을때는 '上考下妣' 또는 '上妣下考'라 기재한다.
- ⑧ 출가한 딸은 생년월일 다음에 남편의 본관과 이름(예 : 夫全州李○○)을 기재한다.
- 3.子を 모두 기재한 한 후 女를 기재하며, 년·월·일 등의 숫자는 2009. 6. 20과 같이 기재한다.
 4. 수단인원이 많으면 수단용지 乙紙에 연속하여 작성한다.
 5. 후손이 없으면 '无后',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不明'이라 기재한다.

인터넷족보 수단용지(갑)

견본

청송심씨대종회

족보등재내역	대동세보(경진보)	[10]권 [556]쪽	인터넷족보	[]권 []쪽
파 명	[5]세조	諱[溫] [안효공]파	[11]세조	諱[仁謙]권 [온양공]파
직 계 선 조	[24]세조 / 諱[仲燮]	[23]세조 / 諱[相得]	[22]세조 / 諱[洪澤]	
수 단 주	주 소		집전화	
	이 름	(인)	핸드폰	
수단책임자	주 소		집전화	
	이 름	(인)	핸드폰	

수 단 금	구 분	수 단 금	인 원	금 액	송금계좌번호 / 팩스 / 주소
	기혼자	10,000원	[8]명	[80,000]원	① 농협 : 301-0019-5484-91 청송심씨대종회(족보) ② 팩스 : 02-2269-7755 ③ 서울 중구 오장동 14-10 (우 100-310)
	미혼자	7,000원	[5]명	[35,000]원	
	합 계		[13]명	[115,000]원	

대종회 접수	접수일	접수번호	접수자	(인)
--------	-----	------	-----	-----

[25]世	[26]世	[27]世	[28]世
子 載守(재수)	子 孝輔(효보)	子 揆錫(규석)	子 昌用(창용)
戶籍名健儀 1904年甲辰	戶籍名孝鎮 1936年丙子	1960年庚子12月18日生	1989年己巳4月10日生
10月10日生 1966年丙午	9月24日生	配眞城李炳姬 父圭和 1962	女 美姬(미정)
5月11日卒	配延安車惠任 父鎮壩 1937	年壬寅6月19日生	1986年丙寅9月18日生
墓星州郡龍岩面基山里	年丁丑1月24日生		
後山 亥坐		女 揆先(규선)	
配安東權月姬 父泰燮 1912		1964年甲辰1月13日生	
年壬子2月10生 1993年		夫醴泉林炳郁	
癸酉2月11日卒 墓雙墳		女 揆玉(규옥)	
		1965年乙巳7月7日生	
		夫海州吳哲熙	
		女 京姬(경희)	
		1969年己酉8月24日生	
		夫金寧金楨何	
	子 璣輔(기보)	子 揆生(규생)	子 鉉用(현용)
	戶籍名璣鎮 1939年己卯	1967年丁未2月5日生	1992年壬申1月1日生
	1月6日生	配南陽洪成蘭 父健儀 1968	女 召姬(소희)
	配金海金貞任 父善亨 1944	年戊申8月25日生	1994年甲戌5月17日生
	年甲申2月11日生		
		女 敬淑(경숙)	
		1070年庚戌12月14日生	
		夫全州李福植	
		女 姬姬(정희)	
		1972年壬子9月28日生	

